



이 길어지면서 영적인 고통이 커졌지만, 그 고통 안에는 축복도 숨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자들은 사제를 그리워하고, 사제들은 신자들을 더욱 그리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움은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자라났습니다. 이 마음이 계속되어 서로를 향한 사랑과 존경이 깊어지고 일상이 은총임을 깊이 깨달아 우리 신앙 공동체는 한층 더 성숙해질 것입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하느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결과로 세상에 죽음이 들어왔습니다(창세 2,17; 3,3.19). 죄의 결과인 죽음은 인간에게 “영원한 소멸의 공포”(사목현장 18항)를 안겨 줍니다. 모든 것을 무(無)로 되돌려놓는 죽음 앞에서 사람은 두려움과 절망에 빠지기 마련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죽을 운명에 처하여 두려움과 절망의 굴레에 갇힌 인간을 구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부활로써 죽음을 넘어 영원한 삶으로 가는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굳건히 믿고 충실히 따르는 이들에게는 영원한 삶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신앙인들은 이 약속을 믿고 죽음의 두려움과 절망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오로는 “나는 과연 비참한 인간입니다. 누가 이 죽음에 빠진 몸에서 나를 구해 줄 수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구해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로마 7,24-25)라고 고백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나약한 우리 인간에게 죽음을 넘어선 희망을 선사해 주십니다. 그분은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보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마태 28,20) 주님은 빛이 충만한 시간만이 아니라 어둠이 가득한 시간에도 우리 곁에 계십니다. 루카복음에 등장하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어둠의 시간에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은 당신의 십자가 죽음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여 길을 가던 제자들에게 낯선 나그네의 모습으로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힘과 용기를 주시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이끌어주십니다(루카 24,13-35).

현재 우리도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처럼 어둠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긴 어둠의 터널이 언제 끝이 날지 몰라 많이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은 어둠의 터널을 걸어가야 하는 우리를 곁에서 동행하십니다. 그분께 우리를 맡기면 두려움을 이기고 희망을 간직할 수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지난 3월 27일 ‘인류를 위한 특별 기도와 축복’ 예식에서 주님께 의탁하여 두려움을 이겨내자고 다음과 같이 호소하셨습니다. “옛적의 뱃사람들에게 별이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의 배에 주님을 모십시오! 우리 두려움을 주님께 넘겨드려, 그분께서 이기시게 합시다. 제자들처럼 우리는 그분과 함께 배에 있으면 난파하지 않는다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마르 4,35-41). 하느님의 힘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악한 일들조차 선으로 바꾸